

냉전 시 소련의 해양전략과 미국의 대응

정 광 호*

1. 서론
2. 해양전략의 개념 및 구성요소
3. 냉전 시 소련의 해양전략
4. 미국의 대응전략
5. 결론

1. 서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패권국가로 등장하면서 대륙국가인 소련과 ‘냉전(The Cold War)’시대를 열었다. 이후 1990년 소련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은 냉전의 종말을 가져왔고, 탈냉전시대로 접어들었다. 탈냉전 시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 등장한 미국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또다시 대륙국가인 중국과 ‘쿨워(The Cool War)’¹⁾의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박사과정

1) Noah Feldman, “Managing the coming Cool War with China”, *The Korea Herald*(2013.6.4.)

‘냉전’ 시 미국의 대소 전략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봉쇄정책(containment)’을 펼쳤고, 중국과의 ‘쿨워’ 시대에는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 지역 우방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며,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지연시키는 ‘봉쇄적 개입정책(Congagement)’을 펼치고 있다.²⁾

이와 같이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등극 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던졌고, 던진 국가는 소련과 중국이다. 이 두 국가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가진 대륙국가라는 것이다.³⁾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상군위주로 전력을 건설하는 군사전략사상을 고수하였다가, 해양국가인 미국과의 대립이 점증되면서 점차적으로 해군력 증강을 통해서 미국과 대립을 하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반대되는 사회주의 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사항에 주목하고자 한다. 1917년 볼셰비키혁명으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레닌이 1918년 2월 12일 소련 함대를 창설한 후 소련 해군은 지상군을 보호하는 ‘요새함대(fortress fleet)’, ‘현존함대(fleet-in-being)’ 등의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전략을 추구했다가,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핵추진잠수함의 총척수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등 적극적인 대양해군으로 성장하였고, 미국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공세적인 해양전략으로 전환하게 된다. 즉, 미국의 해상경쟁자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중국 해군 또한 전통적으로 ‘인민전쟁’ 개념에 입각

2) 봉쇄적 개입(Congagement)은 봉쇄(congagement)와 개입(engagement)의 합성어임. 애런 프리드버그, 『패권경쟁(중국과 미국, 누가 아시아를 지배할까)』 (서울: 까치, 2012), 111~145쪽.

3) 대륙국가란 개념은 해양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두 용어상의 대비개념은 국가의 전력구조와 국익추구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지상군 중심의 전력을 보유한 국가이면 대륙국가(소련, 중국)로, 해군 중심의 전력을 보유한 국가이면 해양국가(미국)로 분류한다. 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국제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Halford J. Mackinder, “The Geographic Pivot of History”, *Geographical Journal*, Vol. 23, No.4(1904), pp.421~437 참조.

하여 적 해군을 최대한 영해로 유인하여 게릴라식으로 타격하는 수동적인 ‘해양인민전략’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연안에서의 방어만으로는 미국의 봉쇄와 급증하고 있는 근해에서의 해양이익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근해에서의 적극방어를 통해 방어중심을 늘리고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⁴⁾

즉, 미국은 19세기 중반 이후 비슷한 성격을 가진 대륙국가들과 해군 경쟁을 하였고, 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과의 해군경쟁에서는 소련의 몰락으로 미국의 해양통제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고, 중국과는 태평양 지역에서 치열한 해군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냉전 시, 특히 1970년대 소련의 해양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미국의 해양 전략을 알아보는 것은, 21세기 미중 간 해군력 경쟁과 태평양지역의 안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의 전개는 먼저 이 글의 핵심개념인 해양전략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고, 1956년 이전 소련의 해양전략 사상의 흐름과, 1956년 소련의 고르시코프⁵⁾ 해군사령관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된 소련 해군의 해양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련의 적극적인 해양전략의 변화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해양전략의 변화로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박창희,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와 중국의 군사전략”, 『中蘇研究』 통권 119호(2008), 64~65쪽.

5) 고르시코프는 1910년 2월 26일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다. 1931년 4년제 후륜제 해군대학을 졸업하여 흑해함대 구축함 함해사로부터 출발하여 1956년부터 해군 총사령관으로 29년간 재직하다가 1988년 7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고르시코프는 1960년 50세의 생일에 지도자로서 국가보위의 공로로 ‘레닌훈장’을 받았고, 1962년 원수로 진급되었다. 그리고 1960년 중반에는 당고위층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산당 중앙위원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정부기관지를 통하여 소련 해군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고르시코프는 해양전략에 대한 소련의 국부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오늘의 막강한 소련 함대를 발전시키는데 해군 전략사고의 기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군 전략이론가가 직접 소련 해군력을 건설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세계 해군사상 보기도문 이론, 실무 및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한 명 제독이다.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290~293쪽.

2. 해양전략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해양전략의 개념

전략이란 용어의 기원은 ‘장군(a general officer)’ 또는 ‘장군의 술(art of the general)’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strategos’ 또는 ‘strategus’에서 유래되었다. 전략이란 용어가 영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7년 전쟁(1763) 후인 18세기 말이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전략과 전술(tactics)⁶⁾의 차이를 두지 않았고, 전술이란 용어를 더 일반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18세기 이전까지 전략의 의미가 ‘전투의 책략(ruses de guerre)’, ‘야군부대의 재배치를 통한 적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devices for fooling the enemy as to the disposition of our troop)’라는 전술의 의미와 비슷했기 때문에 굳이 전략과 전술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⁷⁾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전술적 성격이 강했던 전쟁양상이 국가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는 복잡한 성격의 전쟁양상으로 변하면서 전술보다 상위개념의 전략이 등장하였다.

전략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행동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으로서 전략에 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0세기 이후 전략개념의 정의는 공통된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합참은 “전략이란 승리에 대한 가능성과 유리한 결과를 증대시키고 패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 수단과 잠재역량을 발전 및 운용하는 술이며 과학이다”⁸⁾라고 정의하면서 전략을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전략은 ‘학(學) 또는 술(術)’, ‘학과 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시간과 환경에 의해 변한다는 것을

6) 전술은 ‘명령하다(order) 또는 규율하다(regulate)’란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인 ‘tactos’에서 유래되었다.

7) Edward Mead Earl, *NOTE ON THE TERM STRATEGY*(US Naval War college, 1949), p.2.

8) 합동참모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참모본부, 1998), 357쪽.

알 수 있다. 즉, 전략은 전략적 목적과 대규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간에서 대규모 전투력을 기동시키고 지도하는 학 또는 술임을 알 수 있다.

해양전략 개념 또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개념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벳(Corbett)’은 “해양전략이란 해양이 실질적인 요소가 되는 전쟁에서 그 전쟁을 지배하는 원칙으로서 해양전략의 주요 관심 사항은 전쟁계획에서 육군과 해군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군전략은 해양전략의 일부로서 해양전략에서 지상전략과 관련하여 수행해야할 함대의 역할을 결정하였을 때 그에 따라 함대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⁹⁾ 이렇게 볼 때 해양전략은 단순한 함대의 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쟁 전체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대와 지상군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오늘날 합동작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해양전략은 평시를 제외한 전시 해양력의 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틸(Geoffrey Till)’ 교수는 “해양전략이란 국가가 자국의 해양력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고 전·평시를 막론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력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다”¹⁰⁾ 라고 함으로써 해양전략의 적용시기를 평시까지 확대시켰다. 즉, 전쟁양상이 복잡해진 오늘날 전략이 보다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평시의 적용 및 단기적인 군사력의 운용전략 뿐만 아니라 해양력의 준비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해양전략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해양전략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평시 국가의 해양력¹¹⁾을 운용하고 준비하는 술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9) Julian S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London: Longmans, 1981), pp.11~12.

10)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Nuclear Age*(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2), p.14.

11) 머헨은 “해양력(sea power)이란 무력에 의하여 해양 또는 해양의 일부를 지배하는 해상군사력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통상(commerce)과 해운(shipping)을 포함한다”라고 하였다.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2) 해양전략의 구성요소

‘라이케(Lykke)’는 전략의 구성요소를 목표, 수단, 방법으로 설명하였다.¹²⁾ 이것을 해양전략의 구성요소로 적용해보면, 해양력의 전시사용과 해양력의 평시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³⁾

전시 해양전략은 해전에서 승리를 위한 해양력의 사용과 통제에 관한 것으로 그 목표는 해양통제라고 할 수 있다. 해양통제는 우리가 원하는 해양을 사용하고 필요시 적에게는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양강국이 주로 추구하는 함대결전과 해상봉쇄가 있으며, 열세한 해군이 주로 사용하는 현존함대가 있다. 또한 해양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양군사력 투사와 적 침공에 대한 방어 및 해상교통로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해양통제를 위한 수단으로는 해양세력의 주 플랫폼인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와 이들로부터 발사되는 각종 무기체계가 포함된다.

평시 해양전략은 크게 전쟁억제, 해군외교, 해양질서유지 및 자원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 전쟁억제는 군사력의 가장 기본적인 평시 임무로서 여기에는 보복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 방법이 있다. 보복적 억제를 위한 수단은 전략 핵잠수함이며 거부적 억제를 위해서는 나머지 해양세력이 사용될 수 있다. 해군외교는 국가의 대외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해군력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해군력 현시와 위기관리라 할 수 있다.

1660~1783(New York: Hill and Wang, 1957), p.25. 한국의 해군기본 교리에서는 “해양력이란 해양을 통해 얻어지는 국가의 군사, 정치, 경제적인 힘으로써 국가이익, 국가목표 및 국가정책 추구를 위해 필요한 해양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역량이다”라고 하였다.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2002), 3-2~3-5쪽. 즉 해양력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구성요소는 해운력과 해군력이라 할 수 있다.

12) Colonel Arthur F. Lykke, Jr, “THE FUNDAMENTAL OF MILITARY STRATEGY: DEFINITION, CONCEPT AND THEORY” *Military Strategy*(US Army War College, 1969), p.3.

13) 박호섭, 『해양전략의 이론과 본질』(대전: 해군대학, 2002), 18~19쪽.

해군외교의 수단으로는 수상함이 주로 사용되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항모기동전단이다. 해양질서를 위해서는 불법어로 단속, 해적행위 방지, 밀수·마약밀매 방지, 밀입국 단속,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자원 보호가 있으며 그 방법으로서 해양감시, 해양경비 및 해양안보협력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은 주로 수상함과 해상초계기가 되며 일차적으로는 해양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해양경찰의 능력이 부족할 때는 해군이 이를 지원한다. 위의 내용들을 아래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해양전략의 구성요소

구분	목적	방법	수단
전 시 해양전략	해양통제	함대결전 해상봉쇄 현존함대 해상군사력투사 적 침공에 대한 방어 해상교통로 보고 및 공격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기뢰 미사일
평 시 해양전략	전쟁억제	보복적 억제 거부적 억제	SSBN SS(N)
	해군외교	해군력 현시 위기관리	수상함 항공기
	해양질서 유지	불법조업 단속 / 해적행위 방지 밀수, 마약밀매 방지 / 밀입국 단속 해양오염 방지 / 해양자원 보호	수상함 초계기

※ 출처: 박호섭(2002), 전계서, 19쪽 재구성.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박호섭(2002)은 이론적으로 전·평시 해양전략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미소 간 냉전시대는 전시가 아닌 평시의 시기였기 때문에 미소 양국은 핵 및 재래식 분야에서 전쟁억제를 위한 해양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곧 전시의 해양전략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평시에서 전시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목적과 방법에서는 변화가 있으나, 수단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수단인 해군 플랫폼은 여러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양성이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평시를 위한 수단의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의 역할에

있어서의 구분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해양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평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해양전략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냉전 시 소련의 해양전략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겠다.

3. 냉전 시 소련의 해양전략

소련의 해양전략의 흐름은 1953년 흐루쇼프기 소련 이전의 해양전략의 논쟁과 이후의 해양전략의 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¹⁴⁾ 본 장에서는 1953년 이전의 소련의 해양전략의 이론적 논쟁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으로 해군력을 감소시킨 이전까지의 소련의 해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953년 이전 소련의 해양전략 이론적 논쟁

(1) 구학파(The old school, 1924~1928): ‘머한주의적 제해권 전략’

구학파는 전통적 해군의 거함거포 및 항공모함과 같은 대양해군에 의한 해양통제를 주장하는 학파이다. 대표적 이론가로는 그 당시 소련 해군대학총장을 역임한 게르바이스(Boris Gervais) 교수였다. 그는 ‘머한

14) Juegen Rohwer and Mikhail S. Monakov는 1953년 이전 소련의 해군력 건설에 대한 분류를, 재건기 1920~25, 강화기 1925~32년, 제2차 5개년계획 1933~37년, 제3차 5개년계획 1935~39년, 위대한 애국전쟁(2차대전) 1941~45년, 1945년 이후-스탈린체제 종말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소련의 고르시코프 사령관 등장 이후 미 해군의 경쟁자로서의 등장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해양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1953년 이전은 해양전략의 이론적 논쟁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그 이후로 2분하였다. Juegen Rohwer and Mikhail S. Monakov, *Stalin's Oceangoing Fleet: Soviet Naval Strategy and Shipbuilding Programmers 1935~1953*(London: Frand Cass, 2001), chap.11.

주의적 제해권 전략'을 주장하였다. 이 전략은 약자는 강자가 마음대로 분쟁해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또는 사용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제해권이 반드시 '분쟁상태'에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잠수함, 기뢰, 해안포, 항공기 그리고 경수상함을 사용하여 봉쇄부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균등화(equalized)' 될 때까지 적을 약화시키고, 전력이 균등화한 시점에서 봉쇄당한 부대는 출항하여 합리적 승리를 전망하며 결전을 감행한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을 위한 해군전력으로는 영국 해군의 2/3만큼의 주력함을 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서구강대국의 해군력에 대항하여 최소한 소련근해에서 분쟁적 제해권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대형함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학파의 견해는 소련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1928년 구학파의 견해에 대립하는 소장파가 등장하였다.¹⁵⁾

(2) 신학파(The young school, 1928~1938): '거부적 요새방어 전략'

신학파는 육군 및 당이 지지하는 어뢰정, 잠수함 등 '소규모 해군 (small navy)'으로 지상전을 지원하는 해양거부를 주장하였다. 신학파는 잠수함과 항공기의 대두로 말미암아 대형함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경타격부대를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잠수함과 항공기는 적 수상함에 의해 봉쇄될 수 없으므로, 잠수함과 항공기가 대형함을 대신하여 해군의 주 타격전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머헨과 콜롬이 주장한 대령함에 의한 제해권을 다투는 해전의 두 형태인 봉쇄와 결전은 제해권 자체 이론과 함께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파의 영향으로 소련은 제2차 5개년 계획(1933.1~1937.12) 때, 잠수함을 집중적으로 대량 건조하였다.¹⁶⁾

15) Robert Warring Herrick, *Soviet Naval Theory and Policy: Gorshkov's Inheritance*(Naval Institute Press, 1988), pp.155~156.

16) 김정현, 『대륙국가의 해군력 증강』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5), 126~127쪽.

(3) 소련학파(The soviet school, 1938~1956): ‘제한적 제해권 → 적극적 현존함대 전략’

소련학파는 잠수함과 항공기의 출현으로 신학파가 주장하는 제해권 교리가 약화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학파는 ‘전력 균등화 전략(force-equalization strategy)’을 주장하였다. 이 전략은 ‘제한적 제해권(limited command of the sea)’을 확보해야 된다는 전략으로써, 더 강한 적군의 일부와 교전하여 적의 전력을 소모시켜, 적의 전력이 약화되어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결전을 추구할 수 있을 때 적 해군의 주력부대를 패배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전략은 가상 적에게 너무 열세하지 않은 1/3 이상 규모의 전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 전략 실행이 가능한 대형함 위주의 해군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주어진 기간에 의도한 해역에서 잠수함, 어뢰정, 그리고 항공기로 구성된 약한 해군부대의 우세를 보장하기 위해 적당한 주력함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¹⁷⁾ 이 학파는 결전이 적의 주력부대를 패배시키는 유일한 전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고전적 제해권 교리에 구속되지 말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소련은 1938년 제3차 5개년 계획(1937~1941) 기간에 해군전학파의 균형잡힌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제2차세계대전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는데 실패하였다.¹⁸⁾

1949년에 가서는 ‘제한적 제해권’에 반대하는 ‘적극적 현존함대(active fleet in being)’ 전략이 제기되었다. 소련의 해군역사가 피테르스키(Piterskiy)는 이 전략은 소련이 미국의 항모에 대항할 수 있는 항모를 건조할 수 있을 때까지 잠수함, 항공기, 경·고속 수상함으로 미국에 대항한다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현존함대전략’은 ‘열세해군이 해전을

17) 박정규, 『러시아 海軍戰略에 관한 研究』 (대전: 해군대학, 2002), 31~32쪽.

18) 종전 후 스탈린은 야심찬 대양해군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1,200척의 잠수함, 175척의 구축함, 35척의 순양함, 1척의 전투순양함과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여 1940년대에 4개의 함대와 1개 전단을 편성하여 운용하였으나, 여전히 육군중심위주의 폐쇄적 전략사상은 해군의 가치를 연안방어적 차원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박정규(2002), 상계서, 34쪽.

수행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코벳의 견해로, 이 전략은 스탈린의 승인을 받아 항공모함 건조계획이 추진되었으나, 1953년 스탈린이 죽은 후 결국 취소되었다.

2) 1953년 이후 소련의 해양전략: '해양거부전략(sea denial strategy)'

흐루쇼프(1953~1964)는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견제를 위해서 해군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고르시코프를 해군사령관으로 임명(1956~1985)하여, 29년 동안 집권을 맡기면서 세계적인 해군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소련의 해양전략은 고르시코프의 이론에 기초하면서 발전하였던 것이다.

고르시코프는 해전에서의 승리는 전투 목적의 달성뿐만 아니라 다음 임무달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형성을 의미하므로, 해전 자체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련해군은 기본적으로 미국해군의 임무수행(상륙작전, 전력투사)을 저지하는 방어적이고, 억제적인 대응전략인 '해양거부전략'을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⁹⁾

'해양거부전략'의 채택 배경에 대하여 고르시코프는 첫째, 지상군 중심의 전통적인 전략아래 소련해군은 지원적 / 방어적 역할로 예속화되어 있으며, 둘째, 지리적 제한으로 소련이 방대한 해안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지원이 어려운 4개의 분리된 독립함대가 대양진출을 위해 적에게 통제되는 봉쇄된 해협을 통과해야 하며, 아울러 이들 4개의 함대가 적의 해양이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주교통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과, 셋째, 전력구조면에서 적극적인 해양통제를 위한 공격적인 항공모함, 상륙능력, 항공기 등이 열등한 반면에 핵잠수함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진해외기지체계의 미흡과 대양작전능력이 결여되어

19) 김이돈, 『소련의 해양전략이론과 극동함대의 전략목적과 목표』(서울: 국방대학교, 1986), 10쪽.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림 1〉 소련 해군함대 위치



※ ①(북해함대), ②(발틱함대), ③(흑해함대), ④(태평양함대)

호루쇼프는 대미 핵억지력에 바탕을 둔 평화공존 개념을 해군력 건설에 적용하였다. 스탈린기에 계획되었던 대형함정 건조계획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해양통제보다는 해양거부전략에 중점을 두어 어뢰 고속정과 유도탄 고속정 등을 위시로 한 소형 수상함과 잠수함 위주의 해군력을 건설하였다.²⁰⁾ 즉, 적이 소련본토에 도달하기 전 원해에서 방어한다는 개념보다는 육상에 기지를 둔 항공세력과 어뢰정 및 유도탄 탑재 소형함으로 연안에서 방어한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소련은 ‘청색방어지대(blue belt of defense)’라는 자체의 해상거부 해역을 설정하고, 미국 함정을 미사일로 격파한다는 전략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것은 미국 항공모함의

20) Bryan Ranft and Geoffrey Till, *The Sea in Soviet Strategy*(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3), p.91.

전방전개작전의 유용성에 대해 미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²¹⁾

소련은 미국 항모전단에 대응하기 위하여 1955년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에 성공하였고, 1958년에는 ZV급 전략잠수함(디젤), G급(디젤)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실전배치하였으며, 함대함 미사일(SS-N-1)을 탑재한 Koltin급 구축함 4척을 건조하였다. 이것의 발사 사정거리는 400마일 이하였는데, 목표는 항구에 정박중인 미 항공모함과 폴라리스 잠수함이었다. 1958년에는 전략미사일부대를 창설했고, 1960년에 16발의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Y급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시켰다. 그리고 2세대 미사일인 서브(Serb)는 1964년에 G-II급 잠수함에 장착되었는데 사정거리는 1,000마일이었다.²²⁾ 이렇듯, 흐루쇼프의 해양전략은 핵역지 개념에 의거 미국항모 전단의 소련 본토공격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형 수상함보다는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잠수함과 미사일을 탑재한 소형함정을 위주로 해군력을 건설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소련의 해양전략은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로 전면적인 수정을 가하게 된다. 쿠바미사일 위기에서 소련은 미국의 해상봉쇄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해양작전의 한계를 보였다. 즉, 소련은 전 세계에 대한 해외개입정책을 지원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어떤 해역에서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해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고르시코프가 말했던 것처럼, 그 목적은 ‘제국주의적인 대양전략’에 대항하는 것이었다.²³⁾ 이것은 고르시코프가 주장하는 ‘균형함대’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브레즈네프(1964~1982) 집권 시기 소련해군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21) Robert Waring Herrick, “The USSR’s ‘Blue Belt of Defense’ Concept: A Unified Military Plan for Defense against Seaborne Nuclear Attack by Strike Carriers and Polaris/Poseidon SSBNs”, in Murohy, *Naval Power in Soviet Policy*, pp.169~178.

22) George W. Baer, 김주식 역, 『미국 해군 100년사』(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173~75쪽.

23) S. G. Gorshkov, *The Sea Power of the State*(Oxford: Pergamon, 1979), p.284.

대양해군으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는 소련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와 불가피하게 핵전쟁을 할 경우를 상정하고 해양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소련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기동전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해양전략을 수립하였다. 소련해군은 평시에 적의 전략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유사시 적의 해군력이 본토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일 때, 이를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즉응전력을 갖추고자 하였다.

1971년 소련 해군은 50척 이상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의해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공격용 잠수함들로 구성된 해양거부전력은 300척 이상으로 증가했다. 1971년 소련이 이미 건조된 그리고 건조 중에 있는 핵추진잠수함의 총척수에서 미국을 추월했다. 소련은 D급 핵잠수함에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했다. D-I급 잠수함 18척에는 각각 4,300마일의 사정거리를 보유한 XX-N-8 미사일이 12발씩 실려 있었다. D-II급 잠수함 4척에는 각각 3,500마일의 사정거리를 보유한 SS-N-8 미사일이 16발씩 실려 있었다. D-III급 잠수함 14척에도 사정거리 3,500마일, 다탄두 미사일인 SS-N-8 미사일이 16발씩 실려 있었다.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들은 더 이상 대서양이나 태평양 동부로 나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해상 경쟁자로 부상한 것이다.²⁴⁾

한편, 소련은 미국처럼 제해권을 확립해 준 공격용 항공모함을 건조하지 않았으며 또한 잠수함에 대항하기 위한 다목적 함정도 건조하지 않았다. 이것은 소련의 미사일 전력이 미국과 나토의 수상함대를 침몰시킬 수 있고, 소련의 대잠함정이 자국의 전략미사일함대를 침입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이었던 것이다.

북극해가 소련의 전략가들에게 점점 더 중요해짐으로써, 광범위한 잠수함 작전이 북극해 밑에서 시행되었다. 미국의 최초 핵추진잠수함인

24) George W. Baer, 김주식 역(2005), 전게서, 748쪽.

노틸러스호(Nautilus)가 북극 밑으로 항해한지 4년 후인 1962년에 소련의 N급 잠수함도 북극해를 통과했다. 서방세계에 ‘오케안 70, 75 (Okean 70, 75)’로 알려진 1970년도 소련해군의 훈련은 대양해군의 능력을 과시했다. 모스크바의 중앙지휘부는 4개의 소련함대, 한 개의 인도양 전대 그리고 한 개의 실질적인 지중해 함대를 지휘했고, 200척 이상의 수상함과 잠수함이 그 훈련에 참가했는데, 유도미사일 함정과 헬기 항공모함도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함정은 대서양 북부와 노르웨이해의 나토군 해역에 집결했다.²⁵⁾

1976년은 고르시코프의 전진배치에 대한 열망, 즉 소련 해군의 포함외교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연도였다. 1973년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 미·중 간 재교섭, 미·일 간 관계 개선 등이 소련으로 하여금 강력한 군사력에 관심을 집중하게 했고, 이러한 세계 질서의 변화는 소련으로 하여금 태평양에 대한 중요성을 부과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은 1970년대에 태평양 함대에 해군 전력들을 증강시켰다. 1984년까지 활동하고 있던 소련의 모든 잠수함 중에서 30% 이상(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23척, 공격용 잠수함 125척)을 태평양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태평양에는 소련의 모든 수상함 중 30%가량이 전개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소련 태평양함대는 소련 북부함대보다 더 많은 함정을 전개하고 있었다.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소련 해군의 항공력 중 30% 정도로 구성된 가장 큰 함대 항공단의 보호를 받았다. 이 항공부대는 440대 정도의 항공기가 배치되었는데, 그 중 150대는 전술 공격기와 전투폭격기였다. 또한 1979년 이후에 소련은 남중국해에서의 정찰을 위해 베트남의 캄란만에 지원기지를 보유하였다.²⁶⁾

25) ‘Okean 70’에 대한 논의는 Bruce W. Watson, *Red Navy at Sea: Soviet Naval Operations on the High Seas, 1956~1980*(Boulder: Westview, 1982), pp.28~30 참조.

26) 소련이 1970년대 말에 내린 태평양함대를 증강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MccGwire, *Military Objectives in Soviet Foreign Policy*(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 pp.162~88; MccGwire, “The Changing Role of the Soviet Navy”,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 43:7(Sept, 1987),

적기(赤旗) 태평양함대(Red Banner Pacific Fleet)로 알려진 이 확장된 태평양함대는 몇 가지 임무를 위해 설립되었다. 그 중의 하나는 잠수함 미사일부대를 위해 태평양요새를 방어하는 것이다. 소련은 태평양 기지에서도 미 해군의 기동양상을 감시할 수 있었다. 또한 미 해군 지도자들에게 소련의 해외개입 가능성, 일본에서 인도양을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미국과 그 동맹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의 가능성, 그리고 미국 해군 활동지역 밖에서 소련 해군력의 현시 가능성은 분명하였다.

스탈린 이후 흐루쇼프와 브레즈네프 시기를 거치면서 소련은 ‘제해권을 갖지 않은 채 어떻게 미국에 대항하면서 해군작전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전략적 선택에 답을 해야만 했다. 이것이 고르시코프 제독이 주장한 ‘해양거부전략’이고 이 전략의 수단으로서 나온 개념들이 ‘균형함대(balanced fleet), 단기핵전, 유보전략(withhold strategy)’ 등이다.²⁷⁾

소련해군의 전략임무는 전통적인 해상교통로 보호나 차단 등의 ‘함대대함대(fleet against fleet)’ 작전보다는 육상의 전략목표에 대한 공격과 방어에 역점을 둔 ‘지상대함대(shore against fleet)’ 작전을 중요시하여 전략적 공격은 첫째, 적의 군사·경제의 중심지를 무력화시키고 둘째, 해상교통로의 시작과 끝인 기지와 항구를 파괴하고 셋째, 적의 공격수단인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략적 방어측면에서 소련은 서방국가들에 의해 해양으로 포위되어 있고 그들은 이 광활한 해역을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위한 해·공군 기지로서 이용하면서, 전방위에서 단시간 내에 소련의 육상전략목표를 파괴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그들의 육상목표 공격능력을 가능한 한 방해 및 약화시키기 위하여 해군력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전쟁과정

pp.34~38 참조.

27) 균형함대는 수상함을 포함한 항공기, 잠수함 등을 포함한 균형된 해군 전력 건설을 말하는 것이고, 단기핵전은 다량의 막강한 핵 전투수단을 보유한 여건 아래에서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전쟁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유보전략은 잠수함의 상대적 생존성을 이용하여 적과 첫 핵 공격을 교환할 때 핵잠수함의 사용을 일부 유보하여 전쟁 중이나 전후 평화 회담에서 이를 협상조건으로 소련 측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전략임.

에서의 해군력의 효과는 적 지상목표를 파괴시키고 적 해군의 공격능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느냐 하는 정도의 실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의 해양전략은 ‘방어적인 해양거부전략’으로서 전시 소련해군의 주 임무는 해양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약화 및 무력화시키고 지상전을 지원하는 것이며, 평시 주 임무는 핵 미사일에 의한 억제인 것이다.

4. 미국의 대응전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해양거부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의 핵 및 공격적 항공모함의 전력에 맞서서 해군력을 증강시키면서 미국에 대응하였다. 본 장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 집권 이전까지 소련의 해양전략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을 알아보려고 한다.

미국에서 1975년부터 1984년 사이 10년간 발생했던 71건의 사고 중 58건, 약 81% 정도가 미 해군 군사력의 사용과 관련이 있었고, 58건의 사고 중 35건은 항공모함의 사용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 10년 기간 동안 미국의 전략핵전력(strategic nuclear forces)의 역할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반면에 재래식 전력은 점점 더 중요해 지는 양상을 보였다. 1946~1975년, 30년간 미국 외교관계에서 핵전력의 존재는 19건의 각기 다른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대로 1975~1984년의 기간 동안 정치적 목적을 위한 핵 무기의 정치적 사용은 없었다.²⁸⁾

즉, 유럽에서 소련과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열세를 핵 우위로 대처하겠다는 미국의 국가전략이,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소련과의 핵 균형이

28) John B. Hattendorf,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trategy, 1977~1986* (Newport, Rhode Island: Naval War College Press, 2004), pp.3~5.

발생하면서, 국가전략의 수단으로 핵의 유용성이 점차 줄어들었던 것이다. 소련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에 대응할 정도의 해군력을 증대시켰고, 또한 1970년대 중소 간 동맹 파괴와 미중 간 관계 개선은 소련으로 하여금 태평양지역으로의 관심을 또다시 가지게 하였고, 이것은 소련의 태평양지역으로의 해군력의 집중이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해양전략은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1970년대 소련의 해군력 증강 및 태평양 지역으로의 해군전력 집중은 미국의 1.5 전쟁가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5 전쟁가설은 태평양으로부터 대서양으로의 함정 이동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태평양에서 미국의 국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곧 소련의 동부와 남서부에 대한 미국의 봉쇄정책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 해군이 보인 최초의 반응은 1975~76년에 제7함대사령관이었으며 또한 1976~78년 태평양함대 사령관이었던 헤이워드 제독과 1979~83년 태평양지구 총사령관인 롱(Robert L. J. Long) 제독에 의해 작성된 ‘공세적 해상타격작전(offensive sea strike campaign)’이었다. 이 작전은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전쟁초기 단계에 7함대 함정들 특히, 공격용 항공모함에 의해 주도되고 전진배치된 미군에 의해 즉각적인 공격을 함으로써 소련의 모든 함대 중 가장 잘 노출되어 있는 소련의 태평양 함대를 ‘즉각적인 공격작전’으로 제압한다는 것이다.²⁹⁾

29) 태평양의 블라디보스톡은 5,778마일의 철로 끝에 위치했는데, 공중공격에 취약했다. 그 철로 중 마지막 450마일은 중국 국경으로부터 30마일 이내의 지점을 지나고 있다. 레닌그라드로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 항로의 거리는 희망봉을 돌 경우 19,000마일이고, 수에즈운하를 통과할 경우 15,800마일이었다. 이와같은 긴 해로는 쉽게 감시가 가능했다. 태평양 핵잠수함 기지인 페트로파블로프스키-캄차스키로 가는 보급품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수송되어야 했다. 소련 함정이 동해의 기지에서 출항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해로인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했다. 미 해군은 이와 같은 소련의 태평양 함대의 취약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Frederick H. Hartman, *Naval Renaissance: The U.S. Navy in the 1980s*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0), pp.27~30; John B. Hattendorf,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trategy, 1977-1986*, pp.17~20. 참조.

헤이워드 제독은 두 가지의 ‘해상타격작전’의 목적을 설명했는데, 첫째는 소련과의 전쟁 시 태평양지역의 군사력을 유럽으로 전환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미 해군 전략 속에 있는 태평양 함대를 소련과의 전쟁 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길 원했고, 두 번째는 소련과의 전쟁 시 태평양함대의 전투준비태세, 즉 공격용 항공기는 없고, 방어용 항공기전 배치되어 있던 사실이었다.

‘해상타격작전’은 최초 소련과의 재래식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태평양함대의 작전계획으로 작성되었다. 예를 들어 태평양지역에서 소련과의 분쟁 시 미국은 소련의 페트로파블로스키 기지로부터 500마일 떨어진 지점에 전투그룹을 형성하고, 4개의 공격용 함모가 2개의 방향에서 소련해군의 50% 정도의 파괴를 목적으로 공중공격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세적인 전략적 사고는 1977년 해군성장관인 클레이터(W. Graham Claytor Jr.)에 의해 진행된 ‘해양계획 2000(the Sea Plan 2000)’에 의해 보강되었다.³⁰⁾ ‘해양계획 2000’은 카터 행정부의 유럽 집중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것은 나토군의 해군 전력에 사실상 노르웨이해를 포기했던 ‘북대서양 방어벽 전략(North Atlantic barrier sea-control approach)’을 거부하고, 전진적이고 공격적인 해군과 나토군의 북부 측면에 대한 지원을 표명한 공격적인 전략을 주장했다. 이 계획은 전쟁이 태평양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고, 이때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 2>에서 보듯이 미 해군의 임무를 명시했다.

‘해양계획 2000’은 항공모함과 전함이 소련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는 가정을 부인함으로써 그 함정들을 다시 부활시켰다. 1980년대 가서는 항공모함은 이지스 대공방어 시스템을 갖춘 함정에 의해 방어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함정능력의 작전적 다양성을 언급함으로써 전략적

30) John B. Hattendorf,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trategy, 1977~1986*, pp.13~17.

선택을 제시한 전략·기획연구였던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해군 비평가와 진행 중인 해군 논쟁에 대응하기 위한 1970년대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표 2〉 국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미 해군의 임무

안정유지 (Maintain Stability)	위기 억제 (Contain Crises)	전쟁 억제 (Deter Global W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진배치 · 해군력의 중요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능력 · 소련과의 경쟁에서 해상에서의 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교통로의 보호 · 동맹강화 · 소련의 압박 · 제3세계에 대한 개입

※ 출처: John B. Hattendorf, op. cit., p.15.

이처럼, 1978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의 해양전략의 개념에 대한 일련의 연구과정의 목적은, 전진배치되고, 대규모 함대로 구성된 해군의 수상과 수중 및 공중에서의 공세적 가치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내부에서 확립하는 것과 그리고 이미 나와 있던 마한의 충고를 가지고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해군은 이 해양전략에서 해군의 임무를 분명하게 정의했으며 또한 그것을 해군 무기획득계획의 기초로 삼았다.

1980년대 미국의 해양전략의 요점은 전면전이 시작될 때부터 해군이 소련에 대해 직접적인 공세작전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해양전략은 미국이 일반적인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만약 미국이 승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최고의 억제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해군은 이 두 가지의 임무(승리와 억제력)를 위해 전력을 설계했다. 그 전력은 공세적인 해양통제와 군사력 투사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해상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마한의 원칙을 따르는 다른 모든 임무는 해양통제의 결과로 뒤따르게 될 것이었다.³¹⁾

31) John B. Hattendorf,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trategy, 1977~1986*,

해군은 600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함대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해군은 해양전략에 의해 공격임무를 위한 고가치 전력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해군은 중무장 항공모함전투단 15개로 구성된 4개의 전투함대(각 항공모함전투단은 개념상으로 항공모함 1척, 순양함 2척, 유도미사일 구축함 4척, 프리깃함 4척으로 구성되었다), 1982년에 뉴저지호(New Jersey)의 재취역을 시작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4개의 전함 위주 수상전투단(각 전투단은 전함 1척, 순양함 1척, 구축함 4척, 프리깃함 4척으로 구성되었다), 100척의 공격용 잠수함, 상륙수송부대와 해병 상륙여단의 돌격제대를 위한 부대, 몇 개의 해상보급단, 그리고 많은 지원함들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해군의 모든 기존 전투활동은 전투임무를 내포할 것이며, 각각의 것은 의회가 승인만 한다면 완전한 부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었다. 600척의 함정은 1980년의 부대 수준에 비해 120척의 현역 전투함, 1985년의 수준에 비해 60척의 전투함들을 해군에 증가시켜 줄 것이었다. 해군은 이 수치 이외에도 군사작전의 가능성이 높은 해역에 배치하는 병력과 보급품을 실은 25척의 사전배치선박과 116척의 상시대기선박을 관리할 것도 제안했다.³²⁾

1980년대 미 해군은 1950년의 NSC-68에 의해 요구된 봉쇄정책의 일부로서 전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14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도했던 600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해군은 장차 15척의 항공모함도 보유하게 될 것이었고, 그 항공모함들은 각 전투단의 중심에 놓였다.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미국의 해양전략의 변화는 마한 이래로 해군이 평시에 것처럼 종합적인 교리를 제시한 적은 없었다. 미국의 해양전략은 왓킨스(James D. Watkins: 1982.6~1986.6) 해군참모총장의 꾸준하고 혁신적인 지휘하에서 발전되었으며, 레먼(John F. Lehman

pp.13~17.

32)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Building a 600-Ship Navy: Costs, Timing, and Alternative Approaches*(March, 1982), pp.6~18.

Jr: 1981. 2~1987.5) 해군장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는 동안 레이건 대통령과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 1981.1~1987.11) 국방장관은 해군이 그 해양전략을 실행하도록 허용했으며, 따라서 마지막으로 고조된 냉전기 동안 해양력의 적절성을 부활하도록 허용하였던 것이다.

5. 결 론

1920~1930년대 소련의 군사전략이 대륙 지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해양전략 사상이 공존하고 있었다. 하나는 전통적인 해양국가방식을 추구하는 ‘구학파(The old school)’로서 제해권 장악을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나 실질적인 군사력의 한계로 제한을 받더라도 전함과 순양함위주의 핵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것은 콜롭과 마한의 고전적 해양전략 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사상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고속정, 구축함, 잠수함, 육상기지 항공기 등의 작은해군(small navy)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학파(The young school)’로서 소련 해군이 공격하여 적을 격파하고 제해권을 획득하기 보다는 적의 제해권 획득능력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학파에 이어 ‘전력 균등화 전략’을 주장하면서 ‘제한적 제해권’과 1949년에 가서는 ‘적극적 현존함대’ 전략을 주장했던 ‘소련학파(The soviet school)’가 등장하였다.

한편, 소련은 1950년대로 들어서면서, 1956년 영국과 프랑스의 수에즈 침공사건, 1958년 미군의 레바논 침공,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으면서 흐루쇼프는 해군력의 가치를 실감하게 되고, 고르시코프의 등장으로 해군력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고르시코프의 ‘해양거부전략’을 소련의 해양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소련은 1970년부터 태평양 지역으로 국가이익을 위해 해군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소련 해군의 태평양 지역으로의 세력 증가는, 2차 세계대전 후 대서양 지역에서 지상군 중심의 전략으로 수세적인 역할(해양통제 등)만을 강요 받았던 미국 해군으로 하여금, 적극적 해양전략으로의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공세적 해상타격’, ‘해양계획 2000’, ‘600 함정 해군’ 등의 개념들이 미 해군의 군사적 교리를 강화시켰고, 이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미국의 해양전략의 탄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전략은 위협을 필요로 한다. 1970년대부터 인식되기 시작한 소련 해군의 위협이 미국의 태평양 전략을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고, 이후 미국의 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해양전략이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세계 패권국가는 절대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태평양에서의 미국에 대한 도전은 미국의 해양전략을 더욱더 공세적으로 진화시킬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해양전략, 해양거부전략, 요새함대, 현존함대, 공세적 해상타격, 해양 계획 2000

<ABSTRACT>

The Soviet Maritime Strategy in the Cold War and The U.S. Response

Jung, Gwang-ho

Although the Soviet's military strategy was continent oriented in the 1920~1930, the Soviet Union had two maritime strategies.

The first was 'the old school' that pursued the traditional maritime strategy, contending that it had to strengthen nuclear powered battleships and cruises to command the sea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e geopolitics and sufficient forces and this is in the same vein as the classical theory of maritime strategy by Colomb and Mahan. The second was 'the young school' that pursued small navy with patrol killers, destroyers, submarines and land based naval aircraft, contending that it could deny enemy's command of the sea, which is better than to defeat the enemy and command the sea. Following the two schools, the soviet school emerged which emphasized the limited sea power, focusing on the equal force strategy and current aggressive fleet in 1949.

On the other hand, the Soviet Union in 1956 had made use of a naval power as a means of national policy with the advent of Gorshkov. Since 1970, sea denial strategy was adopted by the Soviet's maritime strategy of the Soviet Union and started to expand the Soviet Union's interest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the Soviet navy increased his power in the Pacific region, the U.S. Navy changed to active maritime strategy. in the past the U.S. navy was forced to play a passive role with a ground oriented forces in the Atlantic region after World War-II. The concept of 'aggressive maritime strategy,' 'Sea Plan 2000,' and '600 Navy Ships' had strengthened U.S. navy's doctrine

and these became the specific and clear maritime strategy of the U.S.

Therefore, this article will find out the changes in maritime strategy of the U.S. in response to the Soviet maritime strategy during the Cold War.

Key Words : maritime strategy, sea denial strategy, fortress fleet, fleet in being, offensive sea strike, sea plan 2000

